



◇고객과 지역사회에의 불우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해암역장. 그는 자랑스런 불자이자 아름다운 '삶의 프로'다.

경주에서 포항을 오가는 동해남부선의 길목에 위치한 시골역. 풍요로우면서도 허허로운 가을 들녘을 배경으로, 안강역에 노을이 물든다.

오후 6시경, 통일호 열차의 기적 소리가 정겹다. 풍채 좋은 중년의 역장이 깃발을 흔들며 열차를 맞이한다. 내리는 승객들과 일일이 힘박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다. 허리 굽은 한 할아버지는 역장과 몇 년만에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는 총총히 사라진다.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만났는데도 더없이 반가운 사람들. 안강역에서의 만남과 이별은 늘 이렇다.

영화에서나 본듯한 이런 모습을 날마다 연출하는 주인공은 최해암(54) 안강역장. 시인, 카루나의모임 회장, '경주 YMCA 10대의 전화' 상담실장, 인터넷 동호회 안

강 소식' (my.netian.com/~cham333)과 '삶 이야기' (club.sayclub.com/@salm304)의 시습 그리고 남편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이자 건강한 생활인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프로'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새마을호와 통일호 등 상하 30회의 여객 열차가 머물렀다 떠나는, 하루 평균 기차를 타는 인원이 7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역. 어린이 자연학습장과 꽃밭, 문화사랑방 등을 갖춘 소공원화된 안강역. 화장실에 낙서판을 설치하고 손님에게는 아무 기록도 없이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역. 친절한 역무원들의 미소가 있는 안강역에서 '아름다운 프로'인 그를 만난다.

최 역장은 1973년 철도청에 입사했다. 부산역을 거쳐 모량역, 건천역, 포항 효자

이웃사랑 실어 나르는 동행가 작은 역 주민 위한 문화 공간 마련 웃음으로 봉사

역, 울산 호계역 역장을 맡으면서 가는 곳마다 항의적인 경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97년 최고 친절인' 상 등 그동안 받은 표창과 봉사상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안강역의 전체 직원은 10명, 5명씩 번갈아 가며 야근을 한다. 할야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는 날 자투리 시간을 아껴 자원봉사도 하고 포교도 한다. 부처님마음과 카

최 해 암
(안강역장)

루나의모임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 아동,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30여년간 해온 든든한 '부업'이다. 최 역장은 <카루나의모임> 회보, <안강 소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도 전한다. 'Say Club'에서 인터넷 방송도 한다. 이런 매체를 통해 통해 삶, 불교, 효도 이야기들 나누고 철도 정보도 전한다.



하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기성세대의 책임을 절감한다. 가솔한 청소년들을 역에서 발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일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 자신 6.25 한국전쟁을 겪은 유복자로 어렵게 자랐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입고 입면 옷까지 벗어주었던 할머니, 구운보편화 보살과 어머니 김보성화 보살의 말없는 가르침. 그것이 오늘의 최 역장을 만들었다.

최 역장이 불교에 눈을 뜬 것은 중학교 때, 경주 분황사 불교학살회에서 가장 난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 겁 지내도록 만나 법기 어려운 법(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이라는 경전을 여는 첫 구절을 듣고부터다. 이제 그는 "지금 서 있는 곳이 극락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부처"라고 확신하는 자랑스런

불자다.

최 역장은 요즘 슬럼프에 빠져 있다. 어머니 김봉희 여사가 2년전 유명을 달리한 후 계속된 우울증이다. 그러나 최 역장은 전국에서 답지하는 후원자들의 정성을 생각할 때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매달 3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오는 송주 임봉수 명성현의원장, 연말에 떡국을 몇 자루씩 보내오는 대구 옥황사 스님, 매달 2만원씩 입금해주는 기관사 등등 숨은 선행자들을 생각할 때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최 역장은 오늘도 고객을 위해 책장에 책을 꽂고, 수족관을 청소하며, 화분에 물을 뿌린다. 거창한 법문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에게서 '삶의 진실'을 본다.

글=김재경 기자 jkim@buddhan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001@buddhania.com

"1000원이면 영양식 1주일분"

정토회 청년회원들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탁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명성(45) 씨. 토요일인 오늘은 일찍감치 퇴근해 명동 거리로 나선다. 체감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진 쌀쌀한 날씨 탓인지 서울 시민들은 웃옷을 세우고 부치런히 귀가 길을 서두른다.

10월 26일 명동성당 앞,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이른 시각이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웅기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우선 멘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에게 한끼의 영양식을 줄 수 있고, 1000원이면 1주일의 영양식을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죠"

이들은 1천원 통일정진 운동을 하는 정토회원으로 몇 년째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거리 탁발에 나선 이들. 정토회대표 유수스님은 2000년 3월 1일부터 불행했던 민족사를



◇'엄마랑 이야기' 북한 어린이를 도와요', 청년정토회원들이 서울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거리모금을 하고 있다.

49일 릴레이캠페인...정토투가꾸기 십시일반

참회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쉼야정진, 통일재지 모금,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거리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토회에서는 1천원 통일정진 회향일인 11월 26일부터 49일 전인 10월 5일부터 '동포돕기 49일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

부에 30년 이상씩 복한 돕기를 위한 거리 모금에 나서자는 것이다. 청년정토회 회원들이 이런 마음을 낸 것은 일반인들이 평소 쉽지 않은 통일운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기 위해서다.

직장인인 박해연(31) 씨가 정토회에서 준비한 팸플릿을 나누어주며 이야기를 건넨다. 그러나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은 몇 초의 여유도 안 준 채 급히 사라진다.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 지나면 행인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바쁘게 자리를 떠버린다.

"예상외로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하지만 모금 해주고 안해주는 것에 일회일비 안 하는 일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수행인 거죠. 모금을 안해주는 사람도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최선

을 다하자고 다짐해요."

이날 청년 정토회원들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모금한 액수는 57만원. 13명이 나서서 2시간 동안 모은 것으로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100여 명의 북한 어린이가 한달 동안 먹을 영양식을 보낼 수 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정성으로 수많은 생명이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정토회원들은 마냥 기쁘다.

청년정토회 류희원(33) 간사는 말한다. "자그마한 정성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10초 동안 마음을 내어 북한 어린이를 돕자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100원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정토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요?"
강유신 기자



강주수의 38명 현대불교신문사 역을 신국판/409쪽/값12,000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

신행을 통해 난관을 극복한 공로 당선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 불자들이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법이나 법이나 자각정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우리가 비록 오막야세(五濁惡世)에 살고 있어 비탄 마음, 비탄 법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법에 귀의한 불자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업장(業障)이 두렵다 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진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운덕 스님(한태종 총무원장)

수상작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 역경을 극복했다는 기복적인 내용보다는 이웃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행복한 신행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불교, 생활불교로 정착되고 있는 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법과 좋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역경을 그저 '한탄하고'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를 수록 그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불자들이도 그렇게 철저한 신안심을 갖고, 평상심에서 보람을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남경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다양한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오로지 불심 하나로 극복해 낸 불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서문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